

19세기 국어의 문법사적 고찰

李 賢 熙

1. 머리말
2. 어휘형태의 모습과 행동
3. 문법형태의 모습과 행동
4. 문장 표현 몇 가지
5.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¹⁾은 19세기 국어를 국어 문법사의 측면에서 자리매김해 보려는 의도로 작성된다. 지금까지 근대국어에 대한 연구가 꽤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었지만, 대개는 표기법이나 음운사적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문법사적 측면에서는 조사류에 대한 체계화, 경어법에 대한 관심, 어말어미에 대한 체계화 등을 제외하면 포괄적인 기술이나 설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근대국어 가운데에서도 특히 19세기 국어는 연구의 대상에서 거의 제외되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원인은 아마도 영인된 자료의 부족과 19세기 국어에 대한 이상한 편견에 있을 것이다.

이 글은 19세기 국어에 대해 문법사적으로 검토한 연구의 결과보고서의 성격을 띠는바, 19세기 국어에 보이는 몇 가지 특징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한다. 아직 이에 대한 필자의 연구가 깊이있게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해 본 몇 문헌 자료에 한정하여 그것

(1) 이 글은 1993년 10월 29일(금)에 있었던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의 제 5회 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바탕으로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작성한 것이다. 토론자로 참여하여 많은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李太永 교수께 감사드린다.

(2) 지금까지 이루어진 근대국어의 문법사적 연구에 대한 연구서는 이현희(1989)를 참조하고, 근대국어의 문법사적 사실에 대한 주제별 연구는 홍윤표(1994)를 특히 참조하기 바란다.

을 토대로 몇 가지 생각을 베풀어 보고자 하는 것이다.⁽³⁾ 이런 점에서 이 글에서 행해진 기술이나 내려진 결론 가운데 몇 가지는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은 19세기 문헌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19세기 전·중반기의 국어와 19세기 후반기의 국어는 다소간 성격의 차이가 보인다. 19세기 전·중반기의 국어는 18세기 국어와 거의 같은 성격을 띠지만, 19세기 후반기 이후의 국어는 현대국어적인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차이를 보인다. 말하자면, 19세기 후반기 국어는 흔히 말해 온 바대로 개화기 국어에 편입시켜 따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는 같은 19세기의 문헌자료라도 시기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어휘형태의 모습과 행동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근대국어에 들어와서 이른바 특수어간교체 현상이 거의 소멸해 버리게 되었는데, 19세기 국어에서는 특수어간교체를 보인 일부의 어형이 화석처럼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원래 하향적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던 동사어간이 부동사형 어미 ‘-아/어’와 통합한 어형은 ‘되여’와 ‘깨여’식으로도 나타나지만, ‘도여(화음 계몽 하 19)’와 ‘발을 싸여 먹으면(재간교린 2:7)’식⁽⁴⁾으로도 나타난다. 즉, 이 시기에는 ‘ㄱ’나 ‘ㄴ’ 등이 이미 單母音化하였지만 그 활용형은 이전에 이중모음이었던 시절의 수의적인 활용형도 함께 보이는 것이다. 이런 자료

(3) 특히 기독교나 천주교 관계 문헌자료나, 창작연대가 확실한 고소설류를 검토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앞으로 이 작업도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19세기 국어의 전모를 드러내어 보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된 자료 가운데에는 20세기 초에 간행된 일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일본어 학습서인 『교정교린수지』(1904)가 그러하다. 앞으로 이들 자료에 담겨 있는 방언적 색채도 고려된 면밀한 검토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모음 ‘ㄱ’나 ‘ㄴ’ 등이 하향적 이중모음이던 시절의 활용형이나 곡용형은 표기상 어간의 일부인 ‘ㄱ’의 수의적 탈락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깨여’와 ‘가여’(睛)의 공존현상, ‘찌여’와 ‘쓰여’(帶)의 공존현상 등은 활용형에서의 ‘ㄱ’의 수의적 탈락현상을 보이고, ‘혜예’와 ‘화예’(炬)의 공존현상, ‘개예’가 ‘가예’(浦)의 공존현상 등은 곡용형에서의 ‘ㄱ’의 수의적 탈락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를 두고 이런 모음들이 單母音化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음라우트 현상등을 통해 이런 모음들의 단모음화가 이 이전 시기에 완성되었다고 음운사적으로 해석된 바 있다.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그 짝을 보인 바 있지만, 형식명사 ‘이’ 외에 ‘양’도 선행 관형절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인다.⁽⁵⁾ ‘만일 驕종호며 <독호냥호며 (여훈 상 37)’, ‘네 공을 심쁘고 아름다운 말슴으로써 <고호량이면 (어제유팔도 율음 2)’, ‘의식 내량이면 엇지 의합홀가 심훈가(교정교린 277)’, ‘아야 이 地方을 提起호량이면 가장 좃타(화음계몽 하 3)’ 등이 그 예를 보인다. 이런 점에서 이 명사들은 단어의 자격은 가지지 못하고 형태소의 자격만을 가지는 진정한 형식명사류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⁶⁾ 그외, 한자어에서 기원한 많은 형식명사가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음도 언급해 둘 만할 것이다. 이미 ‘리’(←理), ‘즉’(←則), ‘태, 체’(←體), ‘작’(←作)⁽⁷⁾ 등이 근대국어 초기

(5) ‘양’은 원래 한자어 ‘樣’에서 기원한 것인데, 선행 관형절과 연결되는 것과 분절되는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가 포함된 ‘호량이면’이나 ‘잘카냥호고’ 등은 “할 것 같으면”이나 “잘난 체하고” 등의 의미를 가지는바, 이 경우의 ‘양’은 형식명사로, 분절되는 ‘양’은 “모습”의 의미를 가지는바, 완전명사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6) 중세국어의 형식명사 ‘이’의 행동에 대하여는 이현희(1990)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이 점은 근대국어에서도 그대로 유효한데, 단지 반드시 선행 관형절이나 관형사형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간혹 과도분절에 의해 선행 관형절이나 관형사형과 분리된 표기도 보인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7) ‘네 이리 비홀 작시면 이 네 <음으로 비호는다 네 어버이 널로 호야 비호라 호느냐(노걸대언해 상 5)’의 ‘비홀 작시면’에서처럼 근대국어 초기부터 ‘작’으로 나타나던 이 형식명사가 19세기 국어에서는 ‘작’이나 ‘작’으로도 나타남이 주목된다. ‘작’과 ‘작’의 받침의 형태음소가 복자음이 아니라 ‘ㄱ’으로 단순화된 사실이 주목되고 [이런 ‘작’은 이미 16세기 말 청주김씨언간에서도 보인다. ‘다만 즈식 드릴 작이면 그리히여 볼 거시라(청주김씨언간 24)’의 ‘드릴 작이면’이 그 한 예이다], 특히 ‘작’의 경우 19세기는 이미 구개음화가 완료된 시기이기 때문에 ‘ㄷ’이 구개음으로 변화되어 있었으므로 ‘작’이 ‘자’로 표기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역으로 그 전 시기라면 ‘자’로 표기되어야 할 것이 ‘자’로 표기되어 나오는 일도 일어났다. 어떤 음운현상의 통시적 변화가 완료된 후에는 그 역방향의 과도교정도 함께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19세기 국어에도 ‘작’은 보인다. 이 ‘작’이나 ‘작’, ‘작’ 등이 포함된 것이 거의 ‘-리 작시면’ 등으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하나의 연결어미인 것으로 파악할 가능성도 있으나, ‘귀 느러여 더 소곰 실라 갈 작신돌 필연 千里馬를 몰라야 보라마는(송강가사 하 15)’, ‘이논 도심이 업손 작이라(선조행장 17)’, ‘대변을 이틀에 홀 번 보느니는 순호고 사홀 나홀 아니 보면 구든 자기오(언해두창집요 하 19)’ 등의 예에서는 그러한 환경이 아닌 곳에서도 ‘작’이나 ‘작’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형식명사로 파악하고자 한다.

단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거니와, ‘세’(←勢), ‘슈, 수’(←手)⁽⁸⁾ 등이 재로이 보이기 시작한 형식명사류들이다. 특히, 현대국어의 ‘할 수밖에 없어’에 소급하는 표현이 어순이 달리되어 다음의 (1)과 같이 ‘할 맞게 슈(가) 업서’ 식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⁹⁾

- (1) ㄱ. 녹노로 갈 터이니 짐을낭 비사름에게 맞길 맞게 슈(手) 업스(교정교린 190)
 ㄴ. 대슈리를 히실 싹게는 슈가 업소리(정정인어 2:4)
 ㄷ. 불가불 이벼리 될 박그 수 업다(춘향전 상 37)
 ㄹ. 춘향은 요의다 터와 갈 밧그 슈가 업네(춘향전 상 41)

이 시기에는 ‘넌은 님군밧게 못 트는 거시니라(교정교린 201)’와 ‘슈인의게 싹테가 되매 츄물 밧게는 업소(정정인어 7:3)’에서처럼 ‘밧게’의 ‘밧’이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었고 관형사형 뒤에 올 수도 있었는데,⁽¹⁰⁾ 관형사형 뒤에 ‘밧’이 와서 이루어진 ‘할 밧게(밧근) 업서’식 표현과 ‘할 슈(가) 업서’식 표현이 혼효되어 ‘할 밧게 슈(가) 업서’식 표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19세기 국어는 어간의 형태변화와 관련하여 꽤 흥미로운 현상을 많이 보

(8) 『인어대방』이나 『교린수지』류에서는 ‘슈’나 ‘수’에다가 그에 대한 한자로 ‘手’를 달아 두었음이 주목된다.

(9) ‘할 밧게 슈(가) 업서’식의 표현에서 형식명사 ‘슈’ 대신에 ‘길’도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아무리 힘두 보와 가며 시작힐 밧게는 힐 싹 업소(정정인어 2:12)’가 그런 예를 보인다. 물론, ‘할 슈(가) 업서’식의 표현과 ‘할 길이 업서’식의 표현도 공존한다. ‘나갈 슈 업기에 나가 더힘히게 허엿슴네다(정정인어 8:8)’와 ‘아무 것도 어들 길이 업소(정정인어 2:5)’가 그 예를 보인다. 그런데 이미 18세기 국어에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던 바 아니다. 예컨대, ‘공스호되 죽을 밧기 다른 도리 업느이다(명의록언해 2:29-30)’와 ‘아모리 호여도 저이 보와 가며 始役힐 받근 힐 일 업소의(인어대방 10:5)’ 등이 그러한 예이다.

(10) 이런 점에서 현대국어에서뿐 아니라 근대국어 단계에서도 명사 뒤에 오는 ‘밧’, 특히 ‘밧게’를 학교문법에서 조사류로 파악하는 태도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현행 학교문법에서나 통설적인 논의에서는, 관형사형 뒤에 오는 것은 형식명사류로, 명사 뒤에 오는 것은 조사류로 파악하는 이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물론, 명사류 바로 뒤에 와서 조사처럼 보이는 ‘밧’에서 의미의 특수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의미의 특수화에 대해서는 이태영 교수가 토론석상에서 지적해 주었다. 현대국어의 ‘만큼’, ‘만’, ‘뵈’ 등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다. 먼저, ‘잇-’과 ‘이시-’(내지 ‘시-’)의 쌍형어간적인 모습을 보이던 존재동사가 ‘잇시니(화음계몽 하 26)’, ‘필연 텃별이 잇쓰리라(정정인어 2:9)’, ‘다른 데 주인 잡어 잇서쓰(정정인어 2:10)’ 등에서처럼 ‘잇-’(내지 ‘잇-’)으로 단일화하는 양상을 보인다.⁽¹¹⁾ 이리하여 ‘잇-’, ‘이시-’와 관련하여 문법화하였던 선어말어미 ‘-앗-’과 ‘-아시-’도 ‘-앗-’(내지 ‘-앗-’)으로 단일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¹²⁾ 이 시기에 ‘-게 하얏-’에서 문법화한 ‘-겻-’도⁽¹³⁾ 단일한 모습으로만 나타나게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형식명사 ‘것’은 계사 ‘(-)이-’ 앞에서 ‘거’로 주의적인 형태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네가 연 게냐(화음계몽 상 6)’에서처럼 ‘거’와 계사 ‘(-)이-’가 화합한 ‘게’로 나타난다. 주격조사 ‘-이’ 앞에서도 ‘거’의 출현이 예상되지만 실제 자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계사 앞에서의 이 현상이 확대되어 현대국어에서는 ‘이게’(주격형), ‘이거를’(대격형), ‘이건’(주체표지 통합형) 등도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시기에는 ‘하얏’과 ‘하얏다’가 다음 (2)와 (3)에서처럼 ‘히’와 ‘히다’로 축약되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은 19세기 후기 국어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바, 편의상 『정정인어대방』의 예만 몇 개 들어 보기로 한다.

(2) ㄱ. 여간 슈보만 히서는(정정인어 2:4)

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히도(정정인어 2:9)

ㄷ. 저기 쇠하야 이전만 못히 뵈테(정정인어 2:8-9)

ㄹ. 사람은 안분슈줄하야 좃굼도 샤치흐 먹음을 먹지 아니히야 올은데(정정인어 7:11)

(11) 이러한 단일화 경향은 이미 18세기 말 국어 자료에서도 산발적으로 보이던 것이었다. 18세기 말의 『綸音諺解』에 담겨 있는 ‘반을 일흔 자도 잇고 전혀 일흔 자도 이스니(유경기홍충전라 2)’의 ‘이스니’나 ‘활과 살을 베프미 네로 조차 이스니 써 남즈의 스방의 뜻 든 바를 빈 뜻이니(유경기홍충전라 1)’의 ‘이스니’가 그러한 예를 보인다.

(12) 이에 대한 해석은 이현희(1993: 64-66)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비단이 근본은 똥타 히도 이리 슈침하야 투식히스니 못 쓰겻다(정정인어 1:7)’의 ‘투식히스니’, ‘스리도 분명치 못허때 아니 주엇스니 아무커나 쉬이 주시게 허읍쇼셔(정정인어 2:11)’의 ‘주엇스니’, ‘그 칩은 안직 기간을 못히쓰니 본 칩을 어더 뱃기시면 도홀 똥허외다(정정인어 2:6)’의 ‘못히쓰니’ 등이 그러한 예를 보인다.

(13) 이 선어말어미 ‘-겻-’에 대하여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게 된다.

- (3) 가. 나는 보지 못했거니와(정정인어 1:4)
 나. 겨우 요시아 니각혔더니 …… 티오 알습네다(정정인어 1:6)
 다. 명의를 만나서 괴복히쓰니(정정인어 1:8)
 리. 우리들이 너관에 잇서 세시를 당히싸 허시고 세찬을 만이 주시니(정정인어 8:5)

특히, ‘했었다’가 ‘혔다’로 축약되는 현상은 선어말어미 ‘-았-’이 단일화한 현상과 맞물려 있어 주목된다. 축약형 ‘히’와 ‘혔-’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고) 히-’ 탈락현상과 관련하여 ‘-다(고) 히여도’가 ‘-다(고) 히도’를 거쳐 ‘-대도’로 형성되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중세국어의 ‘만히-’(多)와 ‘올히-’(是)는 일찍이 근대국어 초기에 ‘ 많-’과 ‘옴-’로 어간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 ‘곤히-’(如)와 ‘슬히-’ 내지 ‘슬히-’(厭)의 경우에는 ‘곤히-’와 ‘꼴-’, ‘슬히-’ 내지 ‘실히-’, ‘슬회-’, ‘실회-’ 등)와 ‘숨-’ 내지 ‘심-’)이 공존하여 왔었는데, 이 공존현상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다음에 몇 예를 들어 본다.

- (4) 가. 가장 漢時의 사름 갓히여(화음계몽 하 1)
 가'. 나발소리는 턴아성과 갓히여서 티오 떨니 들니옵니다(교정교린 181)
 나. 야채란 거슨 밤에 사름을 호리는 귀신이니 독감이 작난과 갓소(교정교린 178)
 (5) 가. 이제 여긔 買賣^하는 이 다 저를 슬히여 하니(화음계몽 상 35)
 가'. 은스는 과거를 실히여 숨어 잇는 사름이로세(개간교린 1:29)
 가''. 아희들이 글 넘기를 슬혀 하고 희학 하기를 조하^하면 일일에 아라(공과신격 중 24)
 나. 옛튼 사름과 말허기 실소(재간교린 1:26)
 나'. 갓 쓴 후에 썩를 아니 썩니 보기 실소(개간교린 3:16)

표기는 다소간 혼란되어 있다 하더라도, (4)의 예들은 ‘곤히-’와 ‘꼴-’의 공존현상을, (5)의 예들은 ‘슬회-’와 ‘숨-’의 공존현상을 보여 준다. 이들은 두 어간형이 공존하기 때문에 각각의 후자를 재구조화된 어간형이라고 부를 수 없고 수의적인 교체형이라고 부르거나 축약된 어간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否定用言 ‘아니히-’의 행동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중세국어 이래 ‘아니히-’는 ‘아니히-’(기본형), ‘아닐-’(가, 다

등 자음어미 앞에서의 수의적 교체형), ‘아닐-’ (선어말어미 ‘-ㄴ-’ 앞에서의 수의적 교체형), ‘아니-’ (매개모음과 일반모음으로 시작하는 모음어미 앞에서의 수의적 교체형)의 크기는 네 가지 교체형⁽¹⁴⁾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교체가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거니와, 이에 더하여 19세기 중엽 이후에 들어 ‘아니ㅎ-’가 ‘-다’ 앞에서도 ‘아닛-’이라는 새로운 교체형을 더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아니ㅎ-’ 자체가 모든 환경에서 ‘않-’이라는 새로이 축약된 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만ㅎ-’와 ‘을ㅎ-’ 등이 ‘맏-’과 ‘을-’ 등으로 어간의 재구조화를 경험한 사실에 유추되어 ‘아니ㅎ-’에서 ‘않-’으로 어간의 축약현상을 경험한 것이라 해석된다. 여기에서는 ‘아닛다’의 예와 ‘않-’의 예만 들어 둔다.

- (6) ㄱ. 칠이 끊지 아닛다(백석교린 3:14)
 ㄴ. 가위가 드지 아닛다(백석교린 3:19)
- (7) ㄱ. 만일 약속을 직회지 안코 부침무상홀 짝시면(정정인어 9:6)
 ㄴ. 산 뜻차 잇서 먼 데가 뵈지 안는다(재간교린 1:19)
 ㄴ'. 썸은 남근 죽지 심거야 죽지 안느(재간교린 2:16)
 ㄷ. 그런 대찬치 아는 님질에는 술 먹어두 관계치 아느오니(정정인어 9:11)
 ㄹ. 가운데는 관계치 안스외다(교정교린 25)

(6)의 ‘아닛다’는 형용사 뒤와 동사 뒤에서 다 나타나 있음이 흥미롭다. 아마도 이 문헌에만 국한된 표현이 아닌가 한다. 특히 (7ㄷ)의 ‘아는’과 ‘아느오니’에서는 ‘ㅎ’이 표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유성음 사이에서 ‘ㅎ’이 거의 발음되지 않은 사실과 관련이 있다. (7)에서와 같이 모든 환경에서 ‘아니ㅎ-’와 그 축약형 ‘않-’이 공존하게 됨으로써 ‘아닐-’이나 ‘아닐-’, ‘아니-’ 등의 수의적 교체형은 점차 위축되어 소멸하게 될 운명이 되었다.

(14) 엄격히는 ‘아닐-’과 ‘아닐-’을 합쳐서 자음어미 앞에서는 ‘아닐-’으로 나타난다고 일반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 ‘ㄱ, ㄷ’ 등 자음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아닐-’은 그 발음 ‘ㅎ’과 ‘ㄱ, ㄷ’ 등이 합쳐져 ‘아니코, 아니티’ 식으로 ‘ㄱ, ㄷ’ 등의 유기음을 이루게 되고, 어미구조체를 더 분석하지 않고 뭉쳐 둔다면 ‘아닐+느니라’(←아니ㅎ+느니라) 식의 구조는 표기상 ‘아닐느니라’를 거쳐 ‘아닐느니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ㅅ’과 ‘ㄷ’이 음절말에서 중화되는 16세기 이후에는 ‘아닐느니라’가 ‘아닐느니라’로도 표기될 수 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않-’에서 다음 예에서와 같은 否定副詞 ‘안’도 새로이 분석되어 나오게 되었다.

- (8) ㄱ. 저세이 보시고 낙본이나 안 되게 하여 주시플 브람니다(정정인어 9:3)
 ㄴ. 내 전경이 아주 말이 안 되야 절빅흔 스정이 될 썬지니(정정인어 9:7)

필자는 ‘아니’ 자체가 ‘안’으로 줄어들었다기보다 ‘않-’에서 ‘안’이 재분석되어 나와서 결국 언중들에 의해 ‘안’이 부사 ‘아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고 파악하고자 한다. *‘안ㅎ-’라는 否定用言이 나타나지 않는 점이 더욱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한다. (8)과 같이 나타나는 ‘안’은 19세기 국어에서는 매우 드물게 보인다.

동사 ‘젊-’이 새로이 보이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젊어지-’의 합성동사로만 쓰이는 데 비해, 이 시기에는 단순어로도 쓰이는 점이 특이하다[예 : 짐바를 가지고 그 짐 질머 오느라(개간교린 3:40); 뷔여 목거 질머 오오(개간교린 2:21) 등]. 형용사 ‘넓-’과 ‘젊-’이 새로이 형성되어 나온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너르-’(寬)와 ‘넙-’(廣)의 혼호형으로 형성되어 나온 것이 ‘넓-’인데(김완진 1973), 그 파생명사 ‘넙희(교정교린 246)’도 새로이 형성되어 나왔다. 중세국어 이래 ‘점-’은 “幼”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대국어 단계에 ‘어리-’가 “愚”에서 “幼”로 의미변화를 보이게 됨으로써 “幼”의 의미를 가지던 ‘점-’은 다시 의미변화를 일으켜 “壯”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로 변질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의미의 변화와 어휘의 경쟁현상은 끝내 형태변화까지 불러 일으켜 ‘점-’이 ‘젊-’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국어에서도 ‘결지 아는 사람이 결문 사람과 힐란하야 무엇허리(정정인어 6:5)’에서처럼 ‘점-’과 ‘젊-’은 공존하고 있었다.

중세국어의 ‘넙빠-’(濫)를 이어받아 ‘넙치-’라는 새로운 모습의 동사가 나타났던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예 : 今年 봄의 훈 번 큰 물이 넙쳐 이 여홀의 다리 툄 모도질러 갔시니(화음계몽 상 21)]. 원래 동사어간 ‘넙-’과 ‘빠-’를 어기로 하여 이른바 비동사적 합성동사로 형성되었던 ‘넙빠-’가 이 시기에는 접미사 ‘-치-’에 의한 파생동사로 이해되게 된 것은 ‘빠-’라는 동사의 소멸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근대국어의 ‘넙찌-’라는 구개음화에 의한 어형[예 : 이 사람이 썬 네 업습이 넙찌니 잡아지라(삼역총해 2:14), 은턱이 넙찌

읍고(자출전칙 4) 등]이 오분석되어 동사 ‘찌-’ 대신 전혀 새로운 접미사 ‘-치-’가 그 자리에 들어 서게 되었음은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9세기 국어에는 새로운 부사들도 생성되어 나왔다. ‘웨’라는 의문부사가 새로이 나타났으며[예 : 웨 스양호논고(교정교련 226)], ‘그릇’이라는 새로운 부사형이 형성되어 나왔다. 중세국어의 부사 ‘將次’ 내지 ‘장츠’, ‘이피’, ‘즈모’ 내지 ‘즈모’에 접미사 ‘-스’이 통합하여 파생부사 ‘將次스’ 내지 ‘장츠’, ‘이밧’, ‘즈모’ 내지 ‘즈모’이 형성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릇’도 영파생에 의해 이피 형성되어 있던 부사 ‘그르’에서 그러한 절차에 의해 형성된 파생부사라고 할 것이다[예 : 이러므로 여긔 잇서 동안을 그릇 하지 못호노라(화음계몽 상 5)].⁽¹⁵⁾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형용사 ‘그르-’와 파생부사 ‘그르’는 서로 어휘적으로 관련이 있었는데, 이 중세국어 단계에 다시 형용사 ‘그르-’(遑)에 접미사 ‘-츠-’이 통합하여 타동사 ‘그릇-’[예 : 그 스잇 잠간 그르츰 고디 六月스 더운 하늘해 눈과 서리왜 오미로다(금강경삼가해 4:21), 님금 주산 거시라 그르츰이 묻호리라(내훈 3:59) 등]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동사는 근대국어 단계에 ‘그르치-’로 남게 되고⁽¹⁶⁾ 소멸해 버렸다. 이런 점에서 부사 ‘그릇’은 타동사 ‘그릇-’과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에서처럼 ‘그릇’이 명사적으로 사용된 예는 19세기 국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¹⁷⁾

중세국어 이래 不定稱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未知稱으로만 사용되던 ‘엇더 호-’나 ‘어느’, ‘므슴’ 관련 어휘들이 현대국어에서처럼 不定稱으로도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의 일이었다. 대표적으로 한두 예를 다음에 들어 둔다.

(15) 이 부사 ‘그릇’은 이미 18세기 자료에도 보인다. ‘상년의 쇼방이 일을 그릇 호야 이에 니르니(산성일기 55)’가 그 예를 보인다.

(16) 근대국어 단계에, 품사 변화와 의미 차이가 거의 없이 이루어지는, ‘-이-’에 의한 파생이 존재하였음은 이미 이현희(1987)에 어느 정도 언급된 적이 있다. 거기에서는 ‘-을-’도 이 ‘-이-’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17) 현대국어의 명사 ‘잘못’이 합성부사 ‘잘못’에서 전용되어 나타난 것이듯이, 현대국어의 명사 ‘그릇’도 부사 ‘그릇’에서 전용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 (9) ㄱ. 大人이 엇덧케 주선^하여 엇덧케 조홀 덕로 하라(화음계몽 하 40)
 ㄴ. 이번 일은 무삼 큰 일이 업지니 언마 동안 머므지 아니^하고 느일 公事를
 맛고 모래 가려 하노라(화음계몽 상 32)

이것은 이미 중세국어 이래 不定稱으로 쓰이던 ‘아므’ 내지 ‘아모’(某) 관련 어휘들의 쓰임새가 근대국어에 들어와서 점차 위축되면서 그 공백을 위와 같은 원래의 의문사들이 메우게 됨으로써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된다. ‘아모리’, ‘아모도’, ‘안만’(←암문 ←아모만)은 중세국어에서와는 달리 그 뒤에 오는 否定表現과 호응하여 쓰이게 됨으로써 그 쓰임새가 위축되었으며 ‘아므라^하-’도 ‘아모란’ 정도에만 그 흔적을 남기고 말아 그 용법의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이다.

‘님’이 접미사가 아니라 명사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님’ 앞에 ‘스’이 개재되는 일이 있다.

- (10) ㄱ. 시어먼님이 늘거 계시외다(재간교린 1:40)
 ㄴ. 큰아지먼님 즈손 만당허외다(재간교린 1:40)
 ㄷ. 적근아지먼님이 년쇼하시나 범절이 가륙허오(재간교린 1:40)
 ㄹ. 오라번님은 티스를 어질게 허시옵네다(재간교린 1:42).

이 현상은 『재간교린수지』에서만 목격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님’의 명사성을 잘 보이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10)의 예들에서는 ‘-스’이 후행하는 ‘님’의 ‘ㄴ’과 자음동화를 일으켜 다 ‘ㄴ’으로 표기되었다는 공통성을 보인다.

3. 문법형태의 모습과 행동

이미 16세기 국어를 담고 있는 문헌에서부터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간 뒤에서 주격조사 ‘-이’나 계사 ‘(-)이-’가 음절합자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어 나온 일이 가끔 있었거니와(이현희 1993ㄱ), 이런 현상은 19세기 국어를 담고 있는 문헌에서도 꽤 많이 보인다. 주격조사의 경우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간에 ‘-가’가 통합됨으로써 그러한 예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으나, 모음으로 끝나는 명사어간 뒤에서 계사 ‘(-)이-’는 음절합자법에 맞지 않게 표기되는 현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현대국어에서 ‘소[牛]이다’

보다는 ‘소다’가 더 자연스럽듯이, ‘ㅣ’ 모음 뒤가 아닌데도 ‘쇠타’ 내지 ‘쇠다’⁽¹⁸⁾ 외에 ‘쇼라’ 내지 ‘쇼다’식으로도 나타나게 되었다[예 : 이런 큰 나라에 이만 일이야 구우일몬데 그대두북 견집허시니(정정인어 8:1)]. 이런 현상이 ‘-이거나’, ‘-이라도’, ‘-인들’ 등과 같이 하나의 조사처럼 굳어진 형태들에도 나타나서 이런 형태들에 들어 있는 ‘이’가 마치 매개모음과 비슷한 종류의 것으로도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에다가’나 ‘-을다가’가 쓰였고, 여기에서 ‘가’가 생략된 형이 근대국어에 들어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예 : 가슴애다 티면 받드시 죽느니(언해태산집요 36)],⁽¹⁹⁾ 이 현상이 19세기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예컨대, ‘통에다 물 부어라(교정교린 40)’에서처럼 ‘통에다’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현상은 조사화한 ‘-보다가’에서도 나타나게 된다.⁽²⁰⁾ 19세기 국어에는 이 ‘-보다’ 외에 ‘-보담’, ‘-보덤’, ‘-버덤’ 등도 나타난다. 여기서의 ‘-ㅁ’은 일종의 첨사인데, ‘-부텀’, ‘만침’ 등에서도 확인된다[예 : 새벽부텀(정정인어 1:8), 불써부텀(정정인어 2:1); 몬지 잘 만침 비가 왔습네다(재간교린 1:19) 등].⁽²¹⁾ ‘-터로’, ‘-쳐로’ 등으로 나타나던 조

(18) 계사 뒤에서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류가 ‘ㄹ’로 시작하는 어미로 변동되는 현상도 19세기에 들어서는 점차 ‘ㄷ’으로 시작하는 어미류로 나타나게 되었다[예 : 솟은 돌 잡기를 잘하니 흥악호 즐침이다(교정교린 71), 궁노슈는 진마다 잇서 활 쓰는 사람이다(교정교린 172) 등]. 그러나 간접인용문의 종결 어미는 예전과 같이 ‘ㄹ’로 시작하는 어미로 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이현희(1991)에서도 어느 정도 언급된 바가 있다.

(19) 이 현상이 이미 17세기 국어에서부터 보인다는 사실은 이태영 교수가 지적해 주었다. 그러나 ‘-을다가’에서 ‘가’가 생략된 ‘-을다’의 예는 보이지 않는다.

(20) 비교를 나타내는 ‘-보다가’는 ‘-보다가도’, ‘-보다가는’ 등으로도 나타나는 바, 주로 『윤음언해』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인다[예 : 쇼민보다가(어제계주윤음 21), 병든 것보다가(比之疾病)(자훈전칙 2); 큰 고을보다가도(어제유원춘윤음 1); 녕동면보다가는(어제유원춘윤음 4) 등]. 경상방언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진 중간본 『여사서』(1907)에는 ‘-보담’으로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려 준 이태영 교수께 감사드린다.

(21) 이러한 첨사 ‘-ㅁ’이 통합한 조사류는 이미 18세기 국어의 방언자료에서도 확인된다[예 : 날브텀 몬져 차바다가(염불보권문 20), 죄브텀 몬져 슈케 허미로쇠다(염불보권문 20) 등]. ‘만치’에 대해 백두현(1990:7)에서는 형용사 어간 ‘만ㅎ-’(多)와 어말어미 ‘-디’가 통합한 ‘만티’가 구개음화를 경험한 후 ‘만치’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중세국어 단계에서부터 존재하던 “정도”를 뜻하는 형식명사 ‘만’과 ‘마’에 “치, 것”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치’가 복합된 것이 ‘만치’와 ‘마치’라고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만치’는 구개음화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던 중세

사가 19세기 들어 ‘-처럼’으로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네 이처럼 컷구나(화음제봉 상 27)’나 ‘귀국 소주처럼 독치 아느니 자셔두 해롭지 아늘 써시니(정경인어 1:5)’의 ‘-처럼’이 그것을 보인다. 그러나 ‘자너쳐로 앓가 온 세월을 空送호니 生而知之호기 쉽스온가(경도대학본 인어대방 2:3)’에서처럼 ‘-쳐로’로 나타나기도 한다.

중세국어의 명사 ‘즈슴’(隔)에서 변화된 ‘즈음’이 명사적인 용법 외에 조사적인 용법을 보이는 현상도 보인다. (22) ‘스지썸 허여셔(정경인어 8:4)’에서처럼 명사 뒤에 와서 ‘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른바 인용조사 ‘-고’가 나타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중세국어에서 피인용문 뒤에 나오던 형식동사 ‘호야’가 ‘호고’로 변화하고 이 ‘호고’에서 ‘호-’의 탈락현상을 겪어 인용조사 ‘-고’가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원래 연결어미의 자격을 가지던 것이 조사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변질된 것이다.

- (11) ㄱ. 스령 불너 잡아 오라구 닐너라(재간교린 1:29)
 ㄴ. 삼목을 잇가나무라고도 호오(교정교린 43)
 ㄷ. 박이라도 호고 표즈박이라고도 호느니라(교정교린 63)

인용조사 ‘-고’는 (11ㄱ)에서처럼 ‘-구’로 나타나기도 하며 (11ㄷ)에서처럼 조사 ‘-도’ 앞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11ㄷ)의 ‘박이라도 호고’는 중세국어적 인용문 구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때의 ‘호고’는 형식동사가 아니라 상위문의 인용동사 ‘호-’의 활용형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인용조사는 쓰임새가 확대되어 피인용문이 아닌 문장 뒤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12)에서처럼 일종의 구실과 관련된 표현과, (13)에서처럼 의도표현의 ‘-려’ 뒤에도 나타날 수 있게 된 것이다.

- (12) ㄱ. 망어는 동히 고기로 셔히로 도망호얏다고 망어라 니르느니라(재간교린 2:9)

국어 문헌자료에 이미 나타난다[예 : 굶 대 네해 집보 우헛 듣글 콩 만치롤 녀료(구급간이방 1:60), 픈만치롤 두고 안히 불어(백은신방 11) 등].

- (22) 원칙적으로 필자는 현대국어의 ‘썸’을 조사로 보는 견해에 찬동하지 않는다. 필자는 ‘즈음’은 완전명사로, ‘썸’은 형식명사로 보는 쪽에 서 있다. 그러나 학교문법에 따라 여기에서는 조사류에 소속시켜 언급하도록 한다.

ㄴ. 제스를 지내노라고 집안이 분주^ㅎ옵네다(교정교린 178)

(13) ㄱ. 하나님께 빌냐고 ^ㅎ옵네다(교정교린 178)

ㄴ. 조공^ㅎ라고 외국 사름이 만히 모였습네다 (교정교린 219)

(12ㄴ)의 ‘-노라고’는 현대국어에 들어 하나의 연결어미로 굳어지게 된다. 그리고 (13)과 관련하여 특히 ‘꼭식을 거두려 ㅎ고 지방은 분주^ㅎ외다(교정교린 218)’의 ‘ㅎ고’는 이런 환경에서의 ‘-고’가 어디에서 그 기원을 두고 있는지 극명하게 잘 보여 준다. 이런 환경의 것은 중세국어에서였다면 ‘거두려 ^ㅎ야’로 나타났을 것인데 어말어미 ‘-아’와 ‘-고’의 통시적 교체현상에 의해 근대국어 단계에 ‘^ㅎ야’가 ‘^ㅎ고’로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피인용문과 의도의 연결어미 ‘-려’ 뒤에 오는 ‘^ㅎ고’에서 ‘^ㅎ-’가 없어져서 형성된 ‘-고’ 뒤에 다시 상위문의 동사 ‘^ㅎ-’가 오는 현상(즉, 분포)이 같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될 바와 같이 ‘(-고) ^ㅎ-’ 탈락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문장이 종결된 뒤에 조사 ‘-그러’가 오는 현상이나 ‘가지고’가 문법화하여 쓰이는 일도 19세기 국어에서 목격된다[예 : 인제야 씨드르섯소그러(교정교린 124); 논하가지고 풀면 쉽게 쳐치되느니라(교정교린 224), 잡아가지고 갑슬 정^ㅎ시오(교정교린 224) 등].

현대국어에서처럼 ‘들’이 유동하는 현상도 관찰되기 시작한다.

(14) ㄱ. 보내신 것들 수대로 저시 ^ㅎ바즈와 ^ㅎ라 ^ㅎ신 대로 주니 하 도^ㅎ들 ^ㅎ니
(언간 179)

ㄴ. 게서 가오시면 가을의 곁것 가든 거지나 ^ㅎ야 입으면 조홀 거슬 아직 두어지니 미^ㅎ이들 못^ㅎ야 잇습(추사언간 9)

이런 점에서 ‘들’의 자격이 과연 접미사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²³⁾

이미 16세기 국어 이래 어말어미의 양성화 현상이 꾸준히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19세기 국어에서도 목격되는바, ‘-녀 > -냐’는 말할 것도 없고 ‘-려 > -랴’, ‘-고져 > 고자, -고즈 ⁽²⁴⁾’ 등에서도 확인이 된다. 그러

(23) 15세기 국어에서 복수의 ‘들’이 명사적 특성과 분포를 보인다는 사실은 이 현희(1994)에 논의되어 있다.

(24) 19세기 국어에서는 ‘ㅈ, ㅊ’ 등의 치음 아래에서 ‘ㅈ’로 적혀야 할 것이 ‘ㅊ’로 적히는 일이 많았다. 이것은 단순히 표기법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나 역으로 ‘-라’는 ‘-러’로, ‘하야’는 ‘하여’로 음성화한 일도 있었다.

19세기 국어의 선어말어미 가운데에는 ‘-겻-’이 특별히 언급될 만하다. 이미 『한중록』에서부터 ‘-게 하엿-’ 내지 ‘-게 하여시-’가 ‘-게엿-’과 ‘-게시-’를 거쳐⁽²⁵⁾ ‘-겻-’이 형성되었음은 나진석(1971:301-304)에서 밝혀진 바 있고 허웅(1987)에서 다시 확인된 바 있다.⁽²⁶⁾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미래나 추정의 의미를 보이는 용법을 보이는 데에는 ‘-게 하여시-’가 잘 나타나지 않고 ‘-게 하엿-’과 ‘-겻-’(내지 ‘-깃-’, ‘-겻-’)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동사어간 ‘잇-’의 단일화와 선어말어미 ‘-앗-’의 단일화가 19세기 중엽 이후 완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15) ㄱ. 다시 날을 바더 가게 하쓰니 무고흐 날을 아터 주시게 하시오(정정인어 8:6)

ㄴ. 집 너외를 소쇄흐 후에야 청허게 하엿슴네(정정인어 5:7-8)

ㄷ. 나갈 슈 업기에 내가 더헝허게 하엿슴니다(정정인어 8:8)

ㄹ. 그런 허소흐 사롬과 合力同事 하다가는 헝허 玉石俱焚이 잇게 하여시니 출하리 곳치는 거시 아니 돛스온가(경도대학본 인어대방 3:2)

아니라 ‘.’가 ‘ㅏ’로 변화한 非音韻化 현상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가 ‘ㅏ’로 변화한 후 근대국어 단계에서는 역으로 ‘ㅏ’도 ‘.’로 적힐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특히 ‘ㅈ, ㅊ, ㅌ’ 등의 처음 다음에 있는 ‘ㅏ’가 ‘.’로 적혔던 현상은 書法上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ㅈ, ㅊ, ㅌ’ 등의 자음 아래에 연속적으로 점을 빼쳐 두기만 하는 筆寫法이 쓰기에 편했다는 것이다. 이런 원고 상태의 것이 인쇄될 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서 목판본이나 활자본에서도 그러한 현상이 목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書法上의 편의성과 관련시킨 생각은 한문학을 전공하는 이종묵 선생과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가지게 되었음을 밝혀 둔다.

(25) ‘-게 하엿-’, ‘-게 하여시-’, ‘-게엿-’의 예는 나진석(1971:301-302)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런데 거기에는 ‘-게시-’에 대한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나, ‘군서 노력도 죽고 아니 노력도 죽게시매 비로소 노력이 적진의 우마를 가지더(산성일기 31)’의 ‘죽게시매’가 ‘-게시-’의 예를 단적으로 보인다.

(26) 그런데 이미 17세기 중엽의 언간 자료에서부터 18세기 말의 『인어대방』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용법을 보이는 ‘-게 하엿-’이 산발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사본 『한중록』만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서특필될 것은 아니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현종 원년(1660) 경에 씌어진 仁宣王后의 諺簡에 보이는 문장 ‘스연도 보고 부매 가서 나르면 더 도키 하엿다’의 ‘도키 하엿다’와 18세기의 필사자료인 『산성일기』의 문장 ‘차년네로 하여 우리 집이 다 죽게엿네(산성일기 80)’의 ‘죽게엿네’만 들어 보더라도 이는 전혀 장형사동 구문과는 관계가 없고 화자나 필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문장으로서 ‘-괴 하엿-’과 ‘-게엿-’이 현대국어의 ‘-졌-’과 다름없는 용법을 보이는 것이다.

- (16) 가. 내가 밧아 두엇스니 노형 손에 권 게나 다르겟소(교정교린 226)
 나. 건널논지 모로깃노라(화음계몽 상 20)
 다. 남은 업셔 다 흰 거시라 호오니 여기서 남을 드리면 조홀 듯호옵마는 뉘
 고더러 드리라 호개습(언간 보 3)

(15가)의 ‘가게 히쓰니’는 화자 내지 필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미래 내지 추정 표현이고, ‘야라 주시게 하시요’는 이른바 장형사동 표현이라서 극명하게 대비된다. (15ㄷ)의 ‘잇게 호여시니’는 ‘잇겟스니’나 ‘잇겟시니’(혹은 ‘잇게시니’)로도 달리 표현될 수 있다. (16ㄷ)의 ‘호개습’처럼 ‘-겟-’이 ‘-게-’, ‘-기-’, ‘-개-’ 등으로 종성의 ‘스’이 생략되어 표기되어 나오는 현상은 근대국어 문헌자료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²⁷⁾

19세기에는 이유 표현의 연결어미 ‘-니’는 ‘-닛가’로 나타나기도 하고 [예 : 장뎡을 집에 만히 두엇스닛가 든든호여 녀녀가 업스외다(교정교린 108) 등], 이따 18세기 문헌에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였던 바이기는 하지만 ‘-기’와 조사의 통합체였던 ‘-기로서’가 어미화한 채 사용되기도 하며 [예 : 아모리 으르기로서 누가 무셔워 호오릿가(교정교린 273)], 이미 16세기에 어미화한 ‘-니더’ (내지 ‘-니테’)가 19세기에는 전어말어미 ‘-거-’와 통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었으며 [예 : 무슨 소임을 허엿썬디 밧비 가오(재간교린 1:37)], 그 외에 ‘-르테’도 어미화한 예가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 [예 : 벌셔 드러와 보올데 느려오면서 즉시 병드러 계우 차복호와 오늘이야 이리 취관허웁고(경정인어 4:6)]이 특히 주목된다. 이 ‘-르테’는 이미 17세기 국어 자료에서 부터 보이는바, ‘-르되’로 나타났다 [예 : 진실로 이만호면 홀되 심각호는 일 조곰도 업시(첩해신어 9:20)]. ‘르(관형사형어미)+이(형식명사)+이(계사)+오더(연결어미)’의 통합체인 ‘-리로더’가 ‘-르로더’를 거쳐 ‘-르되’로 형태 변화한 것인데, ‘-르테’는 여기에서 다시 변화하여 나타난 것이다.

최현배(1971:295-6)에서 ‘지난일 거짓뒤집음꼴’이라 명명된 바 있는 ‘-던들’과 ‘-더면’은 이미 17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던 것이었는데 19세기 국어에서도 확인된다. 단지 18세기 후반부터 전어말어미 ‘-앗-’이 이 연결어미들에 통합될 수 있었음이 그 전 시기의 용법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9세기 국어에서는 아직 현대국어에서와 같은 ‘-더라면’은 나

(27) 이러한 현상은 ‘-앗-’의 표기에서도 공통적으로 볼 수 있다.

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19세기 증엽 이후에는 ‘-거드면’ 내지 ‘-게드면’이 새로이 나타났다.

- (17) 가. 비록 전례는 그랬치 안타 허야도 죽금 스세를 의논허게드면 불가불 변통 허실 일인데 이처럼 고집허지니 소위 교주고슬이로소이다(정정인어 7:1)
 나. 마조 누워 선후 업시 죽거드면 천하의 제일 가난 연분이제(춘향전 상 26)
 다. 조정의셔 저러흔 선비만 쏘마 씨거드면 별노 그른 닐이 읍시리락(봉재집 27)
 르. 이런 거슬 보거드면 조선 스랄도 인도만 잘 허거드면 세계에 남만 못하 지 안홀이요(독립 1:104:1/3)
 모. 어티석은 아히라도 하로 동안돈 공브허거드면 넉넉히 다 알 문호도다(주시경, 국문론)

리의도(1990:163)은 이 연결어미를 ‘-거든’과 ‘-으면’의 혼효형으로 해석하고서 ‘-으면’의 강조형이라고 파악하였지만,⁽²⁸⁾ 이 연결어미는 ‘-더면’(내지 ‘-드면’)에 선어말어미 ‘-겠-’이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겠-’은 ‘-것-’으로도, 자음어미 앞에서는 ‘스’이 표기상 빠진 채 ‘-게-’나 ‘-거-’ 등으로도 표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거드면’이나 ‘-게드면’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고 필자는 믿고 있는 것이다. 이 어미는 “-르 것 같으면”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²⁹⁾

(28) 이태영 교수의 조언에 의하면, 리의도(1990) 이전에도 ‘-거드면’을 ‘-거든’과 ‘-으면’의 복합어미로 파악한 업적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미 Ramstedt의 *Studies in Korean Etymology*(1939:101-3)과 한글학회의 『큰사전』(1947)에서 ‘-거드면’을 ‘-거든’과 ‘-으면’의 복합어미로 파악하였던 것이다.

(29) 최전승(1992)에서는 18세기 국어에서부터 확인되는 ‘-게 되면’ 구성이 ‘-거드면’과 같은 방언적 변화를 거쳐 19세기 후반기 전라방언에 등장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필자에게 도움말을 준 이태영 교수는 ‘-거드면’을 선어말어미 ‘-거-’와 가정의 연결어미 ‘-더면’이 통합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 근거로 통합체 ‘-엇더면’을 들고서, 이것은 과거 사실의 반대되는 가정을 표시하는 것인 데 반해 ‘-거드면’은 미래 가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거드면’의 ‘거’를 선어말어미 ‘-거-’의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거-’와 ‘-더-’는 이미 중세국어 이래 서로 배타적인 관계를 보여 왔는데 어찌하여 이 경우에만 그 둘이 함께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는 다른 문제이기기는 하지만, 현대국어의 ‘-거든’을 ‘거+드(←더)+면’의 통합체로 천착하는 경우를 가끔 찾아볼 수 있는바[이런 견해는 대표적으로 구현정(1989)에서 살필 수 있다], 이런 분석에서도 ‘거’와 ‘더’의 배타적인 관계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에서 해소될 수 있었는지 충분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필자는 믿고 있다.

그의 ‘-도록’이 益甚의 의미⁽³⁰⁾를 가지는 것도 주목된다. ‘가도록 더욱 썰나(화음계몽상 28)’나 ‘훈 히의 저로 하여곰 多少 변전을 노와 더욱 노도록 더욱 넓더니(화음계몽 상 34)’ 등의 ‘-도록’이 그러한 예를 보인다. 이러한 益甚의 의미를 가지는 ‘-드록’이나 ‘-도록’이 이미 중세국어에서도 드물게나마 볼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용법의 것이 19세기 국어에까지 연연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종결어미는 뒷 요소의 절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것들이 특기할 만하다. 반말의 ‘-아’나 ‘-지’가 그러한 형성과정을 통해 생성되었음은 일찍부터 언급되어 온 바 있거니와(이현희 1982), 이 ‘-지’로 인해 그 뒤에 문장조사 ‘-마는’이 통합된 ‘-지마는’도 새로이 나타나게 되었다.⁽³¹⁾ ‘-거든’도 ‘-아’, ‘-지’와 마찬가지로 19세기 국어에서 후행문의 절단으로 생겨난 새로운 종결어미류이다[예: 부리로 좁기를 잘하거든(교정교린 81), 군즈는 불견소과라 허썌든(재간교린 1:37), 동심과 방불하거든(재간교린 1:43) 등].⁽³²⁾ 이미 ‘-느니’(내지 ‘-느니’, ‘-니’), ‘-너’(내지 ‘-네’), ‘-데’ 등이 그러하였거니와, ‘-거니’도 그 뒤에 통합되어 있던 어미의 일부분이 절단됨으로써 형성된 종결어미이다[예: 요커니(교정교린 252), 재도 죽을 썬 슬피 울거니(재간교린 1:58) 등].⁽³³⁾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종결어미류로는 ‘-고’, ‘-쇼’를 더 들 수 있다[예: 날회여 오는 형상이 과연 풍익이르고

(30) 잘 알려져 있다시피 중세국어의 ‘-드록’에서 이어져 온 ‘-도록’은 대개 결과의 의미를 가진다.

(31) ‘-지마는’의 생성과정에 대해서는 이현희(1993c)에도 어느 정도 언급되어 있다.

(32) 중세국어의 ‘-거든’은 매우 다양한 용법을 보였는데(이현희 1994:73-74), 특히 전체의 의미를 가져 현대국어의 ‘-는데’와 거의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후행문의 절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3) 이런 현상은 이미 19세기 이전에도 보였었다. ‘그리어니(노걸대언해 상 6)’와 같은 예가 그 대표적인 예인바, 이에 대비되는 『중간노걸대언해』에는 ‘올흐니’로 되어 있다. ‘-으니’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보인 사실을 이 ‘올흐니’에서 살필 수 있는데, 이 외에 ‘올흐니 小人이 보이다(번역박통사 상 58)’, ‘올흐니 우리 아버지 나를 하야 비호라 하시느다(번역노걸대 상 6)’ 등의 ‘올흐니’에서도 그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맨 마지막의 『번역노걸대』의 ‘올흐니’에 대비되는, 『노걸대언해』, 『평양본 노걸대언해』, 『중간노걸대언해』 등의 어형도 다 ‘올흐니’로 되어 있다. 이현희(1994:62-66)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연결어미 ‘-니’가 의미단락을 완결짓는 용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후행문의 절단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백석교린 4:30), 그 쇼년이 잘 싱겨^ㅅ(재간교린 1:42); 문즈 분명헌 거슬 어더 주소(정정인어 8:4), 족즈를 걸고 그림을 구경허옵쇼(백석교린 3:6) 등]. ‘-고’는 ‘-고나’에서 ‘나’의 절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종결어미이고, ‘-쇼’는 ‘-쇼셔’에서 ‘셔’의 절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종결어미이다.⁽³⁴⁾

17세기 이후의 근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리-’와 통합되어 있는 ‘-리리-’, ‘-리로소-’ 등이 ‘-리-’, ‘-리로소-’ 등을 거쳐 ‘-리-’, ‘-로소-’ 등으로까지 형태변화를 입었다(이현희 1982, 1993ㄴ).⁽³⁵⁾ 19세기 들어서는 ‘-리나-’(←리라 ←리라),⁽³⁶⁾ ‘-올네다’(←올레다 ←올레이다 ←올러이다 ←오리러이다) 및 거기에서 ‘다’가 절단된 ‘-올네’(←올레)⁽³⁷⁾ 등이 이러한 형태변화로 새로이 생성되어 나왔다.

(18) ㄱ. 빗닿을 든든이 썰너라 힘혀 도적 들나(개간교린 3:3)

ㄱ'. 구들 것테 뜻나무를 아서라 힘혀 불 나리라(개간교린 3:2)

(19) ㄱ. 설으면 콤물 눈물이 아모리 씨서도 무한이 나 금치 못허올네다(백석교린 1:8)

ㄴ. 저 사롬은 썩쓰는 사롬이니 밋찌 못허올네(재간교린 1:32)

(18ㄱ')의 ‘나리라’는 ‘-리나’의 기원이 무엇인지 잘 보인다.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종결어미 ‘-올세라’ 및 ‘-올세라’ 외에, 간혹 선어말어미 ‘-리-’와 종결어미 ‘-라’(←다)의 통합체인 ‘-리라’가 警戒나 疑懼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18ㄱ')의 ‘-리라’가 중세국어에서[예: 王이 오시면 존즈불한 사르미 벌에를 블바 주기리라(석보상절 24:33)]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올세라’ 및 ‘-올세라’가 근대국어 단계에 소멸하면서 이 ‘-리라’ 및 그에서 형태변화한 ‘-리나’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되었는데 현대국어의 ‘-리라’에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

위 (19)의 ‘-올네다’ 및 ‘-올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세다’ 및 ‘-올세’이다. 이 후자의 ‘-올세다’ 및 ‘-올세’는 ‘-올시다’(내지 ‘-올시

(34) ‘-쇼’는 이와 달리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즉, 19세기 국어에서는 호오체의 종결어미 ‘-오’에 선어말어미 ‘-시-’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예: 쥬인을 거록키 츠려 더접허옵시오(백석교린 2:31)], 이 ‘-시오’의 통합체가 ‘-쇼’로 축약되었다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생각해 보려고 한다.

(35) 이러한 형태변화는 이미 16세기 국어에서부터 일부 보이던 것이었다.

다) 및 ‘-올시’로도 나타나던 것인데, ⁽³⁸⁾ ‘-오리로소이다’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어미들이다.

- (20) ㄱ. 홀노 잇는 홀아비올세다(재간교린 1:29)
 ㄴ. 내게는 다다익선이올씨다(정정인어 2:8)
- (21) ㄱ. 초잇든날은 분요현 날이올세(재간교린 1:11)
 ㄴ. 눈 삼작일 스이에 부지거켜올시(백석교린 1:34)

이 (20)의 예들로써 현대국어에 화석처럼 남아 있는 ‘NP이올시다’의 정체가 쉽게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새 종결어미들도 나타난다. 非動詞語彙에 통합되는 평서형의 ‘-ㄴ다’[예 : 흥흥 말은 굿하여 발설할 거시 아니 원다(교정교린 306)], 해요체의 ‘요’[예 : 잠깐 기다리시면 성부간에 회답이 잇습지요(정정인어 2:5), 서울은 인군계신 데요(개간교린 2:36), 출입하여 계셔요(개간교린 2:57) 등] 등이 더 언급될 수 있다.

‘-습-’류에서 나온 어미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와 ‘-오’는 이미 16세기부터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만, ‘-읍’, ‘-스오’ 등이 새로이 더 나타난다.

- (22) ㄱ. 도흐면 도치 심난 코이 하 읍(언간 193)
 ㄴ. 여귀셔 남을 드리면 조홀 듯 하 읍 다는 취고 더 드리 라 하 개 습(추사언간 3)
- (23) ㄱ. 아무 것도 어들 길이 업 스 오(정정인어 2:5)
 ㄴ. 오늘은 귀운이 느른 하야 본병이 복 발 헐 가 넌 너 롭 스 오(정정인어 5:6)

(36) 근대국어의 표기 양상 가운데 특징적인 현상의 하나는 語中の ‘ㄹ’이 ‘ㄷ’으로 표기되어 나타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ㄹ라’가 ‘-ㄷ라’로 표기된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37) ‘-올네다’와 ‘-올네’에 들어 있는 ‘-오-’는 근대국어에 들어와 화자결양의 용법을 보이게 된 ‘-습-’ 계통 선어말어미의 한 이형태이다. 이 선어말어미가 통합되지 않은 ‘-ㄷ네’도 존재한다. ‘병어리는 말을 못 하니 답 답 하여 홀 네(교정교린 143)’의 ‘홀네’가 그 예를 보인다. 근대국어의 ‘-습-’이 화자결양의 용법을 보인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현희(1985)와 서정목(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38) 이 현상은 청유형의 ‘-읍세다’가 ‘-읍시다’로도, ‘-읍시다’로도, ‘-읍세다’로도 표기되어 나타나던 사실과 평행된다. 단지, ‘-읍세다’가 아니라 원래 ‘-오리로소이다’ 및 ‘-오리로쇠(다)’에서 기원한 ‘-올세다’류가 이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계사의 활용형 ‘(-)이로세’가 ‘(-)이로시’로 나타나던 일도 참조된다. 즉, ‘과연 공스지행이로세(정정인어 2:12)’와 ‘굿센 사름이로시(백석교린 1-40)’가 대비되는 것이다.

이전 시기에 보이던 ‘-스외’가 ‘-스외이다’(←스오이다)에서 뒷 부분의 절단을 경험하여 형성된 것임에 비해, ‘-스오’는 ‘-스오다’[예 : 이런 무료흔 일이 업스오다(정정인어 3:9), 이런 의미현 일이 업쓰오다(정정인어 4:3) 등]에서 직접 뒷 부분의 절단을 경험하여 형성된 것이다. 물론, 19세기 국어에도 ‘-스외다’[예 : 여드름은 절름 사람의게 나지 늘근 후에는 나는 일이 업스외다(정정인어 5:5)]와 ‘-스외’[예 :弊端이 업게 흐시면 도홀가 싯브외(경도대학장인어대방 1:1)]도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매개모음이 새로이 더 들어간 ‘-으소’[예 : 긴 스설 달고 흔 잔 바드소(재간교린 4:14), 맥 싯테도 삼년을 견된다 하니 참우소(개간교린 3:32) 등]도 새로이 출현한다.

경어법과 관련하여, 이 시기에는 ‘-쇼셔’와 ‘-시-’가 통합될 수 있었음을 언급해 둔다. ‘편지 써 계시거든 보내시옵쇼셔(정정인어 1:4)’, ‘거녕흐야 자시옵쇼셔(정정인어 1:1)’, ‘부디 고소 말고 자십쇼셔(정정인어 8:7)’ 등에서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 ‘부리옵시셔(강화 상 3)’에서처럼 ‘-시-’의 중복된 통합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쇼셔’와 ‘-셔’에 ‘-시-’가 들어 있음이 의식되지 못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현상은 근대국어 단계 초기부터 선어말어미 ‘-습-’에서 기원한 종결어미 ‘-소’에 다시 화자 겸양의 ‘-습-’이 통합될 수 있었던 현상(이현희 1985 7: 22)을 연상시킨다.

4. 문장 표현 몇 가지

추정 표현에 ‘시프-’ 외에 ‘보-’가 새로이 쓰이게 됨이 먼저 언급될 수 있다. ‘시프-’도 중세국어의 ‘식브-’에서 형태변화를 겪어 나온 것이지만, ‘{-나가, -르가} 시프-’ 외에 ‘-르 듯 시프-’가 더 나타나고 추정 표현의 ‘시프-’가 평서형 어미 외에 의문형 어미에도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현상은 18세기 국어에서부터 나타나던 것이었다.⁽³⁹⁾ ‘-나가, -르가} 보-’도 평서형 어미 외에 의문형 어미에 통합되어 나타날 수 있었다[예 : 반가운 일이 잇슬가 보오(교정교린 78)].

피인용문 앞에서 ‘-오더’나 ‘-으되’에 의해 통합되어 나오던 인용동사류

(39) 그 외, 소망 표현에 ‘-고 시프-’가 사용된다는 사실을 지적해 둘 필요도 있을 것이다.

(백석교린 4:30), 그 쇼년이 잘 심겨^ㅁ(개간교린 1:42); 문즈 분명헌 거슬 어더 주소(정정인어 8:4), 족즈를 걸고 그림을 구경허옵쇼(백석교린 3:6) 등]. ‘-코’는 ‘-코나’에서 ‘나’의 절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종결어미이고, ‘-쇼’는 ‘-쇼셔’에서 ‘셔’의 절단으로 인해 새로이 생겨난 종결어미이다.⁽³⁴⁾

17세기 이후의 근대국어에서는 선어말어미 ‘-리-’와 통합되어 있는 ‘-리리-’, ‘-리로소-’ 등이 ‘-리-’, ‘-리로소-’ 등을 거쳐 ‘-리-’, ‘-로소-’ 등으로까지 형태변화를 입었다(이현희 1982, 1993ㄴ).⁽³⁵⁾ 19세기 들어서는 ‘-리나-’(←리라 ←리라),⁽³⁶⁾ ‘-올네다’(←올레다 ←올레이다 ←올러이다 ←오리러이다) 및 거기에서 ‘다’가 절단된 ‘-올네’(←올레)⁽³⁷⁾ 등이 이러한 형태변화로 새로이 생성되어 나왔다.

(18) ㄱ. 빗닿을 든든이 썰너라 힘혀 도적 들나(개간교린 3:3)

ㄱ'. 구들 것테 뜻나무를 아서라 힘혀 불 나리라(개간교린 3:2)

(19) ㄱ. 설으면 콤물 눈물이 아모리 씨셔도 무한이 나 금치 못허올네다(백석교린 1:8)

ㄴ. 저 사롬은 썩쓰는 사롬이니 밋찌 못허올네(개간교린 1:32)

(18ㄱ')의 ‘나리라’는 ‘-리나’의 기원이 무엇인지 잘 보인다. 중세국어 단계에서는 종결어미 ‘-올세라’ 및 ‘-올세라’ 외에, 간혹 선어말어미 ‘-리-’와 종결어미 ‘-라’(←다)의 통합체인 ‘-리라’가 警戒나 疑懼心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18ㄱ')의 ‘-리라’가 중세국어에서[예: 王이 오시면 존즈불한 사르미 벌에를 불바 주기리라(석보상절 24:33)]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올세라’ 및 ‘-올세라’가 근대국어 단계에 소멸하면서 이 ‘-리라’ 및 그에서 형태변화한 ‘-리나’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되었는데 현대국어의 ‘-리라’에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다.

위 (19)의 ‘-올네다’ 및 ‘-올네’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세다’ 및 ‘-올세’이다. 이 후자의 ‘-올세다’ 및 ‘-올세’는 ‘-올시다’(내지 ‘-올시

(34) ‘-쇼’는 이와 달리 파악할 가능성도 있다. 즉, 19세기 국어에서는 호오체의 종결어미 ‘-오’에 선어말어미 ‘-시-’가 통합할 수 있게 되었는데[예: 쥬인을 거룩키 츠려 더접허옵시오(백석교린 2:31)], 이 ‘-시오’의 통합체가 ‘-쇼’로 축약되었다고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생각해 보려고 한다.

(35) 이러한 형태변화는 이미 16세기 국어에서부터 일부 보이던 것이었다.

에서 우리는 인용조사 ‘-고’가 새로이 나타난 사실과 ‘하여’가 ‘히’로 축약되어 나타나기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이미 15세기 국어에서부터 ‘S 하논 말’이 ‘S스 말’로, 16세기 국어 이후부터는 그것이 다시 ‘Sㄴ 말’로도 표현되어 나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이현희 1986ㄴ). 이러한 여러 사실들이 ‘(-고) 하-’ 탈락현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고 하-’에서 적어도 상위문의 ‘하-’가 탈락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실은 피인용문과 상위문 동사 사이에 개재하는 단어경계가 소멸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의 시초가 먼저 소망표현과 의도표현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한다. 이미 ‘아니하느니라’식의 표현이 ‘아닛느니라’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16세기 국어 이래 보편적으로 나타났듯이, ‘-고져 하노라’나 ‘-려 하노라’식의 표현이 16세기 국어 이래 다음 예 (26)에서처럼 ‘-고졌노라’나 ‘-렸노라’식으로도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6) ㄱ. 불 하 업스니 쓰던 거시나 얻고젼노라(청주김씨언간 159)

ㄴ. 양성님이 무당 갖더니 우리게로 돈너 가련노라 하니(병자일기 1638.1.9 일자)

ㄴ'. 또 장춧 강화를 범하려노라(산성일기 59)

(26ㄴ')의 ‘범하려노라’는 근대국어 단계에 종성의 ‘ㅅ’(혹은 후행하는 ‘ㄴ’과 자음동화된 ‘ㄴ')이 수의적으로 빠져 포기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을 뿐이지 (26ㄴ)의 것과 다름이 없다.

다음 예 (27)에서는 19세기 국어에서도 ‘하려(고) 하느-’가⁽⁴⁰⁾ ‘하렸느-’내지 ‘하련느-’로 나타남을 보인다.

(27) ㄱ. 올 年事를 보와여 始役狀啓를 하렸노라 하여 계시던 거시올너니(강화 하 2)

ㄴ. 兩國 省弊를 하련노라 하고(강화 하 11)

ㄷ. 거히를 쓰련는가(백석 교린 3:9)

위 (27)의 예들은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중세국어 단계에서 ‘아

(40) ‘-려고 하-’는 앞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물 뜯면 견마 잡히랴고 하옵너다(교정교린 67)’에서도 볼 수 있듯이 ‘-랴고 하-’로 표현되어 나오기도 한다.

‘니ㅎ-’가 선어말어미 ‘-느-’ 앞에서 ‘아닐느니라’(내지 ‘아닌느니라’, ‘아닛느니라’)로 나타나던 일을 상기시킨다. ‘아니ㅎ-’는 파악하는 태도에 따라 ‘아니+ㅎ-’의 내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아니#ㅎ-’의 내적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실현 양상이 ‘ㅎ렸노라’나 ‘아닛느니라’식으로도 된다는 점은 ‘ㅎ-’가 선행 형식과 단어경계를 사이에 두고 통합하지 않음을 말하는데, 밀접한 관계를 맺는 두 형식 사이의 관계를 긴밀하게 함으로써 말이나 발음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생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금방 소멸되고 결국 ‘ㅎ-’ 전체를 탈락시킨 표현이 새로이 생겨나게 되는데, ‘S ㅎ는 말’이 ‘Sㄴ 말’로도 표현되다가 ‘S는 말’로 표현되면서 이 두 표현이 착종되어 상위문의 동사 ‘ㅎ-’가 탈락해 버린 것으로 언중들이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민들라면(교정교린 166)’, ‘언제쯤 출스를 ㅎ시랴오(교정교린 149)’, ‘반ㅎ라다가(교정교린 173)’와 같은 표현이 그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현상이 동일한 구조를 보이는 인용문에도 파악되어 ‘보드라 허여도(백석교린 4:7)’ 식의 표현이 ‘오더래도(교정교린 21)’나 ‘드러가더래도(교정교린 135-6)’ 식의 표현으로도 나타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19세기 국어에서는 간접인용문만이 이런 현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직접인용문도 이런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 흥미롭다. ‘쉬이 始役ㅎ여 주읍쇼션 말슴을(강화 하 2)’과 ‘病席의 계신 거슬 부더 급즉스려이 參宴 ㅎ쇼션 말 ㄹ트여 主客之道에 맞당치 아니ㅎ오니(강화 상 19)’ 등이 그 예를 보인다. 아마도 여기의 ‘ㄴ’은 15세기 국어에서의 ‘스’에 기원을 둔 것으로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5. 맺 음 말

이 글에서는 19세기 국어를 담고 있는 일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19세기 국어에 대한 문법사적 고찰을 행하였다. 대체로 평소에 필자 자신이 흥미롭다고 생각해 온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끌어 온 느낌이 없지 않다. 시기를 더 세분하여 다루지도 못하였고, 문헌의 성격별로 나누어 보지도 못하였으며,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문헌자료도 많이 있어서 이 글이 19세기 국어

의 진모를 보이는 데에는 많이 미흡할 것이다.

한 편의 연구논문만으로 19세기 국어의 문법적 사실 전체를 체계화한다거나 형식화하기 어려울는지 모른다. 앞으로 더 많은 문헌자료를 검토하여 시기별로, 성격별로 구분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보다 충실한 연구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처음부터 안고 있는 이 논문이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을 것은 어떻게 보면 뻔한 일일 것이다. 한편, 앞으로는 19세기 국어와 전이 닿아 있는 앞·뒤 시기의 국어와도 연계하여 그 위상을 제대로 매겨 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더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통해 19세기 국어도 문법사적 관점에서 볼 때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시기였음이 어느 정도 분명하게 드러났으리라고 믿는다. 19세기 국어 단계가 그저 혼란되기만 했던 시기였던 것도 아니요 현대국어로 넘어 오는 과도기 상태로 머무르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휘형태의 모습과 행동, 문법형태의 모습과 행동, 문장 표현 등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점검하고 음미해 볼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참 고 문 헌

- 강은국(1993), 『조선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우리말 밝히기 5, 서광학술자료사.
 구현정(1989), “조선의 원형태와 ‘거든’,” 『재효이용주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한샘.
 김승곤(1989), 『우리말 토씨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김완진(1973), “국어 어휘마멸의 연구,” 『진단학보』 35.
 김종명(1985), “19세기 국어의 격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나진석(1971), 『우리말의 매매김 연구』, 과학사.
 리의도(1990), 『우리말 이음씨끝의 통시적 연구』, 어문각.
 민현식(1993), “개화기 국어사 자료에 대하여,”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박명채(1989), 『국어 발달사』, 세영사.
 백두현(1990), “영남 문헌어에 반영된 방언적 문법형태에 대하여,” 『어문론총』 24.
 서정목(1993), “국어 경어법의 변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서정섭(1993), “[이유]와 [당연]의 ‘느리다,’” 『국어문학』 28, 전북대학교.
 송민(1976), “19세기 천주교 자료의 국어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72·73.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어 발달사(중),” 『한국문화사대계』 V,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안병희(1992),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지성사.
- 왕문용(1988), 『근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한샘.
- 유창돈(1964), 『이조국어사연구』, 선명문화사.
- 이기문(1972), 『개정 국어사개설』, 민중서관.
- 이주행(1988), 『한국어 의존명사의 통시적 연구』, 한샘.
- 이태영(1988), 『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한신문화사.
- 이태영(1992), “대명사 ‘누, 누구(誰)’의 변천 과정과 방언분화,” 『춘강유재영박사 화갑기념논총』, 이회문화사.
- 이태영(1993), “〈봉계집〉과 19세기말 전북 화산 지역어,” 『국어문학』 28, 전북대학교.
- 이현희(1982),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 이현희(1985ㄱ), “근대국어 경어법의 몇 문제,” 『한신어문연구』 1.
- 이현희(1985ㄴ), “〈하다〉 어사의 성격에 대하여: ‘누리하다’ 류와 ‘엇더하다’ 류를 중심으로,” 『한신논문집』 2.
- 이현희(1986ㄱ), “중세국어의 용언어간갈 ‘-하-’의 성격에 대하여,” 『국어학신연구』 탐출판사.
- 이현희(1986ㄴ), “중세국어 내적 화법의 성격,” 『한신논문집』 3.
- 이현희(1987), “중세국어 ‘돋겹-’의 형태론,” 『진단학보』 63.
- 이현희(1989), “국어 문법사 연구 30년(1959~1989),” 『국어학』 19.
- 이현희(1990), “중세국어 명사구 확장의 한 유형: 형식명사 ‘이’와 관련된 몇 문제,” 『기독교신학선생회갑기념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 이현희(1991), “중세국어 명사문의 성격,” 『국어학의 인식과 전개』, 민음사.
- 이현희(1992), “북한의 국어사 및 국어학사 연구,” 『어학연구』 28. 3.
- 이현희(1993ㄱ), “『小學』의 언해본,” 『국어사 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지성사.
- 이현희(1993ㄴ), “국어 문법사 기술의 몇 문제,” 『한국어문』 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선구문화사.
- 장경희(1987), “국어 완형보질의 해석,” 『국어학』 16.
- 최전승(1991), “19세기 후기 전라방언의 경어법에 대하여,” 『국어학의 인식과 전개』, 민음사.
- 최전승(1992), “조건관계 접속어미의 한 유형 ‘-거드면’에 대하여: 19세기 후기 전라 방언자료와 《독립신문》을 중심으로,” 『이규창박사정년기념 국어국문학논문집』.
-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 허 용(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샘문화사.
- 홍윤표(1976), “19세기 국어의 격현상: 格史를 통해 본,” 『국어국문학』 72·73.
- 홍윤표(1980), “근대국어의 격연구(2): 속격,” 『연암현평효박사 회갑기념논총』.
- 홍윤표(1993ㄱ), “근대한국어의 조사에 대한 연구,” 『朝鮮學報』 145.
- 홍윤표(1993ㄴ), 『국어사문헌자료연구』, 태학사.
-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